

The Study of Golden Decoration Used in the Costumes of Chosun Dynasty Era

Jang, Hyun-Joo* · Ko, Soon-Hee

Cheju National University* · Che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golden decoration technique out of various techniques of expressing patterns on the costumes. This study reviews both costumes decorated with gold in the relics of Chosun dynasty and literatures focused on domestic and chinese documents and records.

The types of decoration technique using gold include *JigGeum* (brocade technique), *KeumBak* (gold powder and flake attaching technique), and *Jasu* (embroidery technique). *JigGeum* is weaved using golden thread instead of silk thread in order to express patterns. It is also called as *GeumSaGeum*, *JigGeumGeum*, *NabSukShil*, *Nab-ShilShil*, *JangHwaGeum*, *GeumDan*, *PyeunJiGeum*, etc.

The *KeumBak* technique is to attach gold or silver powder or thin gold or silver flake on the surface of the fabric. The types of *KeumBak* include *SoGeum*, *CheobGeum*, etc.

The *KeumSaJaSu* technique is to embroider with gold thread on fabrics. The types of it include *BanGeum*, *NuGeum*, *MyeungGeum*, *BaeGeum*, *KwonGeum*, etc.

57 pieces of costumes made using gold in Chosun dynasty era are analyzed. The results follow; In terms of types of technique, *JigGeum* is shown to take the majority; *JigGeum* (63.16%), *KeumBak* (28.07%), *Jasu* (8.77%). There are documents saying that there were *KeumBak* craftsmen and that they were trained to acquire *KeumBak* skills. This record tells us that there has been efforts of using *KeumBak* from the early years of Chosun dynasty era. However, in re-

ality, *KeumBak* is not found much. This may be due to the fact that 46.42% of the costumes used for this research is excavated costumes and that most of excavated costumes is not in good state of preservation compared to the collection of costumes. Compared to *JigGeum*, *KeumBak* is not attached securely and the gold powder used in *KeumBak* is easy to be detached as time passes. Therefore, few *KeumBak* is found.

Looking at the patterns used by the types, plant pattern and letter pattern are mostly used for both *JigGeum* and *KeumBak*. For *JigGeum*, plant pattern(43%), letter pattern(17%) and animal pattern(9%) are used. And for *KeumBak*, letter pattern(38%), plant pattern(29%) and animal pattern(14%) are used.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by their uses, *KeumBak* is used for court dresses (75%). It is also used for ordinary dresses (18.75%) and for other purposes (6.25%). It is mostly used in the court dresses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dynasty era. *JigGeum* is used for ordinary dresses (50%), for court dresses (41.67%) and for other purposes (8.33%). It is evenly used for court dresses and ordinary dresses.

The golden decoration has also aesthetic features, like the occult artistic purpose, the symbolic purpose of social status and decoration purpose.

조선시대 의복에 사용된 金장식 기법 연구

장현주* · 고순희

제주대학교^{*} · 제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의복에 문양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중 금을 사용하여 장식한 기법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관련 국내 문헌 및 중국 문헌을 중심으로 한 문헌적 고찰과 조선시대 복식 유물 중 금을 사용하여 장식한 의복을 중심으로 실증적 고찰을 하였다.

금을 사용한 장식기법의 유형에는 織金, 金箔, 刺繡가 있다. 織金은 무늬를 표현하는 문위사에 일반 견사가 아닌 금사를 사용하여 직조한 것으로 金絲綿, 織金錦, 納石失, 納久失, 妝花錦, 錦緞, 遍地金 등 다양한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다.

金箔은 직물에 금, 은가루 혹은 얇은 금, 은박을 접착제로 붙여 직물표면에 문양을 표현하는 공예기법으로 銷金, 貼金, 泥金 등의 종류가 있다.

金絲刺繡는 직물 제직 후 금사를 사용하여 자수로 문양을 표현한 것으로 盤金, 鏤金, 明金, 衍金, 罔金 등의 종류가 있다.

조선시대 의복 중 금을 사용하여 장식한 의복 57점을 중심으로 유형, 문양, 용도별로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형별로는 직금 63.16%, 금박 28.07%, 자수 8.77%로 직금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 왕조실록 등의 기록에는 조선초기부터 금박장인을 두고 금박기술을 익히게 하는 등 금박을 복식에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기록을 볼 수 있지만 실증적 고찰에서는 금박의 비중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본 유물 중 출토복식자료가 46.42%를 차지하며 이러한 출토복식자료는 소장자료에 비해 유물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직금에 비해 금박은 견고하게 부착되지 않으므로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금박에 부착된 금분은 떨어져 나가기가 쉽다. 그리고 출토유물 중 발견된 금박유물은

세척 등의 보존처리 과정에서 훼손되는 예도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 출토복식 중 금박유물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비교적 후기의 소장품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실정이다.

사용된 문양을 장식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금의 경우는 식물문(43%), 문자문(17%), 동물문(9%), 자연문(9%), 보문 등 기타문양(20%)의 순이며 금박의 경우는 문자문(38%), 식물문(29%), 동물문(14%), 자연문(11%)의 순으로 모두 식물문과 문자문의 비중이 높다. 그리고 흉배에 사용된 금사자수의 문양은 대부분 동물문이다.

용도별 특성을 살펴보면 의복의 전체 보다는 부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금박의 경우는 당의, 대란, 스란치마 등의 궁중예복(75%), 평상예복(18.75%), 기타(6.25%)로 조선후기의 궁중예복에 월등하게 많이 사용되었다. 직금의 경우는 저고리, 홀치마 등의 평상예복(50%), 궁중예복(41.67%), 기타(8.33%)로서 궁중 및 평상예복에서 거의 유사한 비중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금박과 직금의 경우는 남자의복보다는 여자의복에 월등하게 많이 사용되었다.

금을 사용한 장식기법에는 주술성, 신분 상징성, 장식성 등의 내재미가 있다. 즉 의복의 가장자리 즉 상의류의 깃선, 수구 등에 사용된 예가 대부분이므로 악귀방지, 악령침입 방지 등의 주술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금을 의복에 사용할 수 있는 계급은 귀족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신분에 따라 문양이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금을 사용한 장식은 신분 상징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수구, 깃, 쏘 등의 구성선을 기준으로 의복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위에 금을 사용하여 장식했던 점으로 보아 장식성 또한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